

KSPM-150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 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관한 지식·태도·실천에 대한 연구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parents on how to manage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

권은경¹⁾, 김순덕²⁾, 이준영²⁾, 안효섭³⁾, 이제숙²⁾

(1)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목적: 소아암은 1세이상의 소아 사망원인에서 사고사 다음으로 높은 순위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암 그 자체가 요인이라기보다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아암 환자의 장기생존을 위해서는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에서 소아암 환자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의 수준과 그에 대한 지식이 환아를 간호하는데 있어서 태도와 실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와 태도가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임상에서 소아암 부모의 교육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소아암 환아 부모에 대한 교육적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소재 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환아부모 165명을 대상으로 환아가 항암화학요법을 받기 위해 입원중이거나 외래방문 중일 때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 ANOVA, multiple regression, pearson's correlation & partial correlation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0)를 사용하였다.

결과: 소아암 부모의 항암화학요법 및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의 평균점(12.98점)은 높았으나, 최소값(3점)과 최대값(15점)의 차이가 컸으며, 평균의 태도(4.15점)와 실천수준(4.24점)은 적극적이었다.

지식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월수입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로 나타났으며, 실천수준에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었다. 지식·태도·실천의 상관성 분석에서 지식과 태도, 태도와 실천 사이에선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지식과 실천 사이의 상관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소아암 환자 부모들은 의료진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이 이뤄져야하며, 환아를 직접 간호하는 부모의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과: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과 부작용 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은 총점 1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12.98점이었으며, 최소값은 3점, 최대값은 15점이고,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환아 나이, 진단명,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경제수준, 직업,

학력이었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15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출생순위, 재발 여부, 내원목적,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였다.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보호자의 실천수준에 대한 점수는 5점을 기준으로 평균이 4.24점이었으며, 최소값은 2.93점, 최대값은 5.00점이었으며, 경제수준의 유의한 평균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부모의 성별(P=0.07)이었다. Multiple regression 결과로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진단받은 이후 경과시기, 진단명, 내원목적, 학력, 경제수준이었으며, 태도수준에는 지식수준, 내원목적, 출생순위였고, 실천수준에는 태도수준과 부모연령이 유의한 변수였다.

Pearson's correlation에선 각각의 관계에서 상관성이 유의하였으나, Partial correlation에서는 지식과 실천사이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KSPM-157

5대암 조기검진 수검률 전국 조사

Nationwide survey on the participation rate in the screening for 5 major cancers

김동현¹⁾, 조희숙²⁾, 최용준¹⁾, 이훈재³⁾, 주영수⁴⁾, 이태진¹⁾, 조형원⁵⁾, 배상수¹⁾

(1)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4)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5) 건양대학교 병원관리학과

목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암검진과 관련된 기초자료의 생산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성인을 대표하는 표본집단을 구성해 암 검진 수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대상은 남자 40세 이상, 여자 30세 이상으로 서울, 부산/대구, 기타 광역시, 기타 시도 동지역, 기타 시도 읍면지역의 5개 구역으로 층화한 후 성별, 연령별로 표본 규모 모집단에 비례하여 대상수를 할당하였다. 대상자는 무작위번호추출(Random digit dialing) 방법에 의해 선정되었고, 이들에 대해 각종 인구학적 특징, 과거 일생 동안의 암 검사 유무, 지난 2년간(대장암은 5년간) 암종별 각종 검진 수검여부 등에 대해 전화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전화 조상 리스트 중 전화 연결 후, 조사에 성공한 응답율은 서울 37.3%에서 기타 군지역 63.9% 까지 분포하였다. 최종적으로 826명(남자 305명, 여자 521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일생동안 위암,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경부암에 검진 수검률은 각각 43.9%, 25.4%, 54.5%, 그리고 73.8%로 조사되었다. 최근 2년(대장암은 5년)이내) 수검률은 각각 37.1%, 20.3%, 43.6%, 그리고 58.5% 였다. 연령별로 분석하면 위의 모든 암종에서 60대 이후에는 암 수검률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모든 암 검사에서 전액 본인 부담에 의한 암 검사 실시율이 70% 내외로 높았다. 특히 유방암과 자궁암 등의 여성 암의 경우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수검률이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암 검진 수검이유 중 일부는 증상 때문인 것으로

로 조사되어(위암 32.1%, 대장암 29.1%, 유방암 14.1%, 자궁암 10.8%), 엄밀한 의미의 조기 검진으로 보기 어려웠다.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주된 이유는 60%이상에서 '증상이 없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 암 검진의 기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한편 미수검 이유는 고령으로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결론: 본 조사에서 분석된 암종별 검진 수검률은 선행 연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암 검진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암 검진 수검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요구된다.

KSPM-178

질산염과 항산화비타민 섭취가 위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 환자-대조군 연구

The effect of nitrate and antioxidant vitamins intake on gastric cancer : a case-control study

김현자¹⁾, 김미경¹⁾, 최보을¹⁾, 이상선²⁾

(1)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과, (2)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Study objectives: Metabolites of nitrate, not nitrate per se, are known carcinogens. Nitrate involves in the formation of the carcinogenic N-nitroso compounds by reacting with secondary amines or amides, after reducing into nitrite. On the contrary, it has been suggested that dietary antioxidant vitamins(vitamin C, vitamin E, and carotenoids) protect against gastric cancer(GC) by inhibiting the intragastric formation of N-nitroso compounds. Therefore, we assessed the joint effect of nitrate and antioxidant vitamins from foods on gastric cancer through a case-control study in Korea.

Subjects and Methods: Trained dietitians interviewed 136 cases histologically diagnosed with GC and the same number of sex and age-matched controls by using quantitative food frequency questionnaire. Nitrate/nitrite values used in this study were taken from data analyzed by Kim and Yoon(2003) in Korea. And, the presence of H. pylori infection was determined by enzyme immunoassay serology test.

Results: The males of the subjects were 68.4% and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57.3.9 years. A high intake of nitrate per se was not a risk factor of GC (OR=0.76, 95% CI=0.38-1.55). This resul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major food sources of nitrate were vegetables, especially Baiechu kimchi, which also have a high concentration of antioxidant vitamins and has been considered as an anticarcinogenic factor. After adjusting the intake of Baiechu kimchi and antioxidant vitamins, high intake of nitrate showed the increased tendency on the GC risk (OR=2.0, 95% CI=0.71-5.64). In the analysis for assessing the joint effects of nitrate and antioxidants intake, a significant decrease of GC risk was observed in the combination of low nitrate and high β -carotene(OR=0.12, 95% CI=0.03-0.60), compared with persons with high nitrate and low β -carotene intake. The test for an interaction between nitrate and anti-

oxidant vitamin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High intake of antioxidant vitamins may contribute to the lessening of GC risk by counteracting the effect of nitrate. Therefore, the affluent intake of various foods, especially fresh vegetables and fruits containing a high level of antioxidants and other beneficial ingredients, is a key to prevent the incidence of GC.

KSPM-201

Intake of Milk and Calcium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Korea

신명희¹⁾, 남석진²⁾, 양정현²⁾,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2)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교실

목적: The role of milk in developing breast cancer is controversial. Several recent studies suggest an inverse association between milk and calcium intake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The data are still sparse to make any conclusion. We conducted a hospital based case-control study during 1998-2004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intake of milk and calcium and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Korean women.

방법: Cases were newly diagnosed and pathologically confirmed, and the controls were non-cancer patients recruited from 7 clinical departments in the same hospital. The age range was between 30 and 70 years old.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for dietary intake using 94 item food-frequency questionnaire. Total calorie and nutrient calculation was based on the Korean food composition table. Energy adjusted nutrient intakes were calculated using the residual method. We excluded those who reported total calories >3500 kcal/day or <500 kcal/day. A total of 1,371 breast cancer cases and 927 control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ge-adjusted (aOR) and multivariate odds ratios (mOR) and 95% confidence intervals (CI) were estimated by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결과: The mean intake of total milk among controls was 99.4g/day. Compared to those who didn't drink milk, those who drank milk>1/day had lower odds of having breast cancer (aOR = 0.76, 95%CI=0.61-0.94). This negative association sustained after adjusting for age, height, body mass index, age at menarche, history of benign breast cancer,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duration of education, smoking, alcohol intake, number of full term pregnancy, menopausal status, postmenopausal hormone use, and calorie intake(mOR = 0.72, 95%CI=0.57-0.90, p-trend=0.009). When we stratified the data by menopausal status, the negative association sustained in premenopausal women (922 cases, mOR=0.73, 95%CI=0.55-0.96, p-trend=0.02), but attenuated in postmenopausal women (378 cases, mOR=0.76, 95%CI=0.49-1.17, p-trend=0.33). For calcium intake, compared to those who took <=400mg/day, those who took >800mg/day had lower odds of having breast cancer (mOR=0.67, 95%CI=0.48-0.93).

고찰: Higher intake of total milk and calcium may have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risk of breast cancer in Korea. The association for total milk